

친환경과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를 만들다

새만금개발공사 강팔문 사장 인터뷰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 조감도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감도

Q 새만금 사업은 대형 국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진척 없이 지지부진하다는 의견이 있다. 2018년 공사의 초대 사장으로 취임한 후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무엇인가?

A 새만금 사업은 서울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국토를 새로 만드는, 그야말로 초대형 사업이다. 사업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이를 둘러싼 의견 충돌 등으로 개발과정에서 발목을 잡는 일도 많았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만금 개발에 좀 더 속도를 내기 위해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 공공이 선도해 새만금 사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전북에서는 ‘새만금은 30년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회자한다. ‘새만금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새만금의 변화를 만들고 ‘새만금은 성공한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1순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신속한 사업추진을 공사의 핵심 가치로 정하고, 늘 속도전을 강조한다. 성공의 확신을 위해서 구체적인 성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결과 새만금 내부 개발을 견인할 새만금의 첫 도시인 ‘스마트 수변도시’의 건설 사업을 8개월이나 앞당겨 착공했고, 육상태양광 사업도 내년부터 상업 운영을 시작해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있다. 고군산군도에 케이블카 사업도 추진, 2024년에는 케이블카를 타고 서해 낙조를 감상할 수 있다.

Q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어떤 특징을 가진 도시인가?

A 두바이의 팜 주메이라 같은 도시를 연상하면 좋다. 팜 주메이라는 야자수 모양으로 간척을 해서 바다에 만든 인공 도시로, 세계의 부자들이 모여드는 휴양도시다.

스마트 수변도시는 팜 주메이라 같은 아름다운 워터프런트 공간에 친환경과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도시라고 할 수 있다. 도시 어디에서나 500m만 걸으면 물가에 나갈 수 있다. 사업 부지의 35% 이상을 녹지와 수변공원 등으로 조성하고, 새만금의 풍부한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받는 친환경 탄소중립 도시로 계획하고 있다. 또 지능형 교통관리시스템, 스마트 모빌리티, 원격진료 등 특화된 스마트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도시의 중요한 가치로 부각된 것이 인구 밀도다. 스마트 수변도시는 우리나라에서 인구 밀집도가 가장 낮은 저밀도 도시로 설계됐다. 도시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의 모든 편리한 인프라를 누리면서도 자연 속에서 가장 한적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명품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Q 스마트 수변도시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은?

A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 수변도시는 2019년 5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후, 18개월만인 지난해 12월에 착공했다. 1조3천억 규모의 대형 공사를 18개월 만에 착공하기는 실제로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 공사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본격적인 매립공사를 위

해 새만금 방조제와 수변도시를 잇는 공용 진입도로가 완공됐다. 이를 시작으로 호안 축조, 준설, 매립공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25%의 공정을 추진하고, 2023년 6월까지 매립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2024년까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공사와 기업에 공급할 부지를 조성해 우선 분양할 계획이다. 중요한 것은 마케팅 전략이다. 기업과 사람이 스마트 수변도시에서 교류하고 비즈니스를 해나가야 도시가 살아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제학교, 방송사 그리고 공공기관을 유치해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다.

Q 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지역경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A 저출산과 지역 일자리 부족 등으로 전라북도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새만금 사업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 지역기업과 상생하는 사업 모델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수변도시와 육상태양광 공사에 전북 기업이 60%까지 참여하고, 지역 기자재도 85%까지 사용하고 있다. 올해 안에 육상태양광 사업 발전수익의 7%를 보장하는 주민참여채권을 발행해 태양광 발전으로 얻은 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할 계획이다. **▶**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수변도시

Waterfront

Live

- 어디서나 걸어서 물을 접하는 물에 특화된 도시
- 예술, 주거, 업무가 어우러진 새만금만의 수변경관

스마트도시

Smart City

Play

- 스마트 거주환경 관리, 자율주행 등 최첨단 도시
- 도시 스스로 자체 운영이 가능한 사람이 편리한 도시

친환경도시

Eco-friendly

Work

- 신재생에너지를 연계한 에너지 자족형 도시
- 스마트 에너지 관리 등 자동제어 시스템 구축